

들뢰즈의 주름론으로 본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조형성

진 경 욱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철학사유와 연동된 주름 개념은 예술과 디자인 전반에서 논의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들뢰즈의 근원적인 주름디자인 사유 체계의 탐구를 통해 현대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주름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대 패션디자인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주름의 조형적 가치를 통해 점차 다각적으로 표현되는 현대패션디자인의 다양한 창의적 전개 방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으로 주름표현의 형식과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예술이론인 들뢰즈의 주름디자인의 의미에 입각한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주름의 내적미를 차이에 의한 다양성, 경계소멸에 의한 상호관계성, 본질개념의 부정에 의한 탈 중심성으로 분류하였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은 차이의 입체성, 연속성, 유동성, 잠재성으로 분류하였다. 들뢰즈의 주름사유는 복식공간에 적용됨으로써 주름사유를 형태화하여 다양한 형태와 공간감을 부여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새로운 복식조형 공간 구축을 통해서 디자인 영역 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들뢰즈의 주름개념, 현대패션디자인, 잠재성, 연속성, 다양성

I. 서론

주름은 특유의 구조적인 조형성으로 인하여 고대로부터 복식디자인에 애용되어 온 패션 표현기법이다. 특히 현대패션에서 주름은 기능을 갖춘 뛰어난 조형감과 다양한 표면 효과로 인해 그 형태와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변화와 차이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개성추구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철학적 개념으로 주름사유를 연구한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주름사유를 연구함으로써 변화하는 형태의 다양한 공간 요소를 포함하는 현대패션디자인에서 주름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고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대패션에 새로운 의복공간을 창조하는 수단으로서 주름디자인의 진정한 의미와 조형성을 고찰하고 주름의 존재론적 다양성을 이끌어냄으로써 디자인 영역 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가치와 의의를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름 연구는 주름의 장식적인 특성¹⁾, 주름의 가공방법²⁾, 특정 디자이너의 주름표현 특성 연구³⁾ 등 주름디자인의 세부적인 특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름 연구를 철학적이거나 타 미술에 연계하여 주름디자인의 조형성을 연구한 연구로는 건축에 나타난 폴드(fold) 기법과 의상과의 연관을 통한 조형성 연구⁴⁾, 라이프니츠와 들뢰즈를 비교한 현대패션의 주름의 조형성 연구⁵⁾, 소피아 비조비티의 폴딩을 중심한 현대패션의 폴드 기법연구⁶⁾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들뢰즈의 근원적인 주름디자인 사유체계의 탐구를 통해 주름 공간의 특성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현대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주름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미 정립된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이 바탕이 된 주름 표현의 형식과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예술이론에 적용된 디자인의 원칙과 방법

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들뢰즈의 주름디자인의 의미에 입각한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주름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점차 다각적으로 표현되는 현대패션디자인의 다양한 창의적 전개 방향을 고찰하는데 의의를 갖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들뢰즈의 주름사유를 고찰하기 위하여 들뢰즈 철학과 주름 관련서적, 들뢰즈 주름의 선행연구 논문을 살펴보고 들뢰즈의 주름디자인 이론에 입각한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의 다양한 형태를 관련서적과 선행연구 논문, 인터넷자료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주름디자인의 실증적 분석에 이용할 사진자료는 건축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패션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사진자료로 제한하였다. 건축에서의 주름 디자인은 1990년대 이후부터 더욱 지속적으로 고찰되고 있으며, 이 시기부터 패션에서도 다양한 구성 방식에 의한 주름디자인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주 최근의 주름디자인의 표현 방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좁혀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주름디자인 자료로 초점을 맞추었다. 연속적인 자료전개를 위한 인터넷사이트의 다양한 350장의 실증자료는 연구자의 이론적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건축 전문가 3인, 패션 전문가 5인의 검증을 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확장되는 디자인 요소로서 주름디자인의 의미와 조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들뢰즈의 주름사유

1. 들뢰즈의 주름개념

후기구조주의의 대표적 철학자 질 들뢰즈의 주름 개념은 17세기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철학과 유물론에 반대하고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라이프니

뜨(G.W.Leibniz)의 영혼과 물질의 통합을 의미하는 모나드 이론⁷⁾에서 출발하고 있다. 틀뢰즈는 다양한 관계에 의하여 무한히 연속적으로 변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라이프니츠의 주름 개념에 생물학과 현대과학, 현대성과 결합하여 주름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1968년 출간된 ‘차이와 반복’에서 동일성, 총체성과 같은 규범적이고 데카르트적인 공간을 일탈하고 다양한 공간에서의 새로운 유동적 관계성을 강조하였다.⁸⁾ 틀뢰즈의 주름 개념은 하나이면서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세계의 속성들이 잠재성을 가진 내적 복수성의 상태로 접혀져 있는 내재적 힘이 접힘과 펼침을 통해 조형력을 갖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형태론으로서의 주름론은 가장 단순화하여 논한다면 복잡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이다.⁹⁾

2. 틀뢰즈 주름사유의 의미

틀뢰즈는 그의 저서 『The Fold』에서 세상을 공간과 시간의 움직임, 그리고 주름으로 보았고 그가 사유하는 세상을 압축된 시공간과 끝없는 주름이 엉켜있는 본체로 해석하였다.¹⁰⁾ 틀뢰즈의 주름은 일관된 특성을 갖지 않는 유동적인 실체이며 틀뢰즈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의 긍정이며 다양성과 다수성에 대한 긍정이다. 그에게 있어서 예술은 근원적 문체인 지각과 정서에서 시작되며 예술작품이 생성하는 감각은 변화를 창조하고 모든 방향을 향한 접속의 단초가 된다.¹¹⁾ 접혀져있는 잠재성을 드러내기 위한 사유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초월적인 중심을 거부하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역동성을 가진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틀뢰즈의 주름사유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틀뢰즈의 주름사유에 대한 선행된 연구를 고찰하였다. 강훈, 이동연(2004)¹²⁾은 틀뢰즈의 주름사유를 복잡성, 다양성, 잠재성으로, 박은철, 김일곤(2009)¹³⁾은 연속성, 시간성, 상호관계성으로 파

악하였고, 임동연(2009)¹⁴⁾은 가능성, 잠재성, 다양성, 유동성으로, 조창욱(2010)¹⁵⁾은 불확정성, 연속성, 탈 중심성, 잠재성, 상호관계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틀뢰즈의 주름사유를 차이에 의한 다양성, 경계소멸에 의한 상호관계성, 본질 개념의 부정에 의한 탈 중심성으로 분류하였다.

1) 차이에 의한 다양성

틀뢰즈에 있어서 존재의 의미는 접혀진 차이에서 오는 주름의 특이성과 다양성에 있다. 주름 개념으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공간 특성인 다양성¹⁶⁾에 의한 차이는 새로운 생성의 시작점이며 창조성의 배경이 된다. 주름 공간 안의 구조들은 동일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변수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차이에 의한 생성은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이 되어가는 것이므로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정적인 구조주의의 대응시각에서 생겨난 역동성을 추구하는 틀뢰즈의 생성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주름사유 논리는 차이 자체와 이를 통한 다양성 있는 생성에 있다.¹⁷⁾

틀뢰즈의 주름은 끊임없이 차이를 지각함으로써 다수의 차이를 전체 내에서 변형하여 공간의 위계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복합적인 전체 구조를 재구성하고 형성하여 다양성을 추구한다. 주름을 통해 형성되는 무수한 차이들은 내적 복수상태로 접혀서 이루어지고 주변 맥락을 내부로 끌어들이므로써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 차이를 가진 다양성이 표현 되는 것이다. 차이에 의한 다양성은 형태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잠재성은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화 되지는 않았어도 현재와 공존하는 실재가 된다. 표현적인 차이로 구성되는 다양성은 차이자체가 생성적으로 산출하는 근원적인 다양성인 것이다. 즉 실재는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의 합이고 현실화는 곧 표현이며 동일성에 매개되지 않는 차이로 이루어진 다양성의 생성이다.¹⁸⁾

아부다비(Abu Dhabi)에 있는 25층짜리 쌍둥이 건물인 알 바하르 타워(Al Bahar Towers)<그림 1>는 기하학적인 모자이크 컨셉으로 6각형으로 디자인 된 주름디자인의 월 스크린으로 스크린 주름의 접힘과 펼침을 통해 건물의 형태를 다양하고 리듬감 있게 보여준다.¹⁹⁾

구축요소들이 일체화된 구조물로 기하학적 질서와 비례를 가지고 있는 요코하마 포트터미널(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그림 2>은 이 질서와 복잡성을 표현하여 폴드 건축의 다양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접힘과 펼침의 연속되는 기하학적 형태 접기 방식의 천정 주름은 건축물을 관통하는 통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내부의 통로는 연속성의 형태 표현으로 공간전체를 순환적인 동선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차이가 있는 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공간성을 제시함으로써 파편화된 공적요소들의 연속적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²⁰⁾ 또한 폴딩을 건축적 원리로 변환시켜 자기 반복을 거쳐 유연한 공간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경계소멸에 의한 상호관계성

들뢰즈는 주름사유에서 차용된 폴드 개념을 통해 규범적이고 데카르트적인 공간을 일탈한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유동적 관계성을 강조한다. 중심이 없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호관련을 맺을 때 탈 경계의 장을 설정하고 있다.²¹⁾ 주름간의 경계소멸은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함하는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접힘, 펼침의 지속적인 주름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경계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원래의 형태보다 서로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관계로서 무한히 열려있는 개방성으로 존재하며 이 공간은 기존의 코스모스적인 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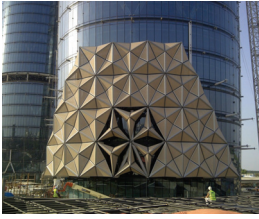
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혼탁 속에 내재한 복잡한 질서를 가진다. 이 복잡한 질서는 외관상 불규칙해 보이지만 일정한 규칙을 가진다.²²⁾ 들뢰즈가 내세우는 이 체계는 독립성을 갖는 모나드들 상호간에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던 관계가 실제적 상호작용으로 변화되어 모나드의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고 각각이 서로 침투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방식을 형성한다.²³⁾ 여기서 접혀졌다가 펼쳐지는 관계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원래보다 서로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관계가 성립되며 이 상호관계는 무한한 중층구조의 입체성을 갖게 된다.

뉴욕의 관광 명소인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의 스테이튼 아일랜드 아트 앤 사이언스 인스티튜트(Staten Island Institute of Arts & Science) 건물<그림 3>은 복잡하고 가변화 된 전체 구조로서 낯설고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재조직되어 무한한 변화를 생성하고 있다. 각 구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침투 현상을 통해 공간의 경계와 위계가 사라져 경계소멸에 의한 상호관계성을 보여준다.

쿵 햄멜브라우(Coop Himmelbrau)가 네덜란드 그로닝겐시에 디자인한 그로닝거 박물관(Groninger Museum)<그림 4>은 꺾이고 기울어져 접혀진 공간에 의해서 구조물들은 벽이 없이 개방되어짐에 따라 시각적 개방성을 획득한다. 다변화된 공간은 연속되어 있으나 이질적인 시스템내의 차이를 통합시켜 다른 공간과 긴밀한 상호 관계를 갖는다.

3) 본질개념의 부정에 의한 탈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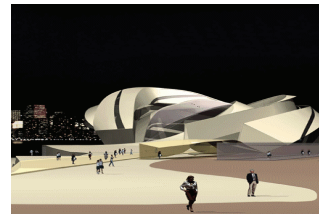
들뢰즈 철학의 중심은 본질개념 부정에 의한 탈 중심적인 존재론이다. 그는 존재를 절대적 존재의 객관적 표상 또는 환원적 실체가 아니라 탈 중심적, 탈 이분법적 실재로 파악하여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탈 중심주의를 지향한다. 그는 중심과 본질의 개념을 거부하여 어떤 중심에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영원한 중심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그림 1> AI Bahar Towers
다양성
Aedas
(출처: www.aedas.com)



<그림 2> 요코하마포터미날
다양성
foreign office architects
(출처: www.secure.arch.virginia.edu)



<그림 3> Staten Islnd Institute of Arts
and Science
상호관계성
Peter Eisenman
(출처: www.designboom.com)



<그림4>Groninger Museum
상호관계성
Coop Himmelblau
(출처: www.blueverticalstudio.com)



<그림5>Jewish museum.,Berlin
탈중심성
Daniel Libeskind
(출처: <http://en.wikipedia.org>)



<그림6>rebstock park
탈중심성
Peter Eisenman
(출처: <http://www.itaproject.eu>)

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여 초월적 중심의 개념을 거부한다고 한다.

틀뢰즈 공간에서의 탈 중심의 의미는 주체와 객체 관계가 아니라 중심을 벗어나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서 또 다른 상호 관계적 유동적 질서를 마련한다.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표현되는 연결 사고를 가지고 공간표현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림 5>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세 개의 중심축, 즉 기존 박물관에서 유대인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가장 긴 동선, 유대인의 추방을 의미하는 지하에서 호프만의 전원으로 이르는 길과 대학살을 의미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세 개의 축으로 틀뢰즈의 탈 중심의 사유를 구현하고 있는²⁴⁾ 다니엘 리베스 킨드(Daniel Libeskind)의 베를린 이스라엘 박물관(Jewish Museum, Berlin)이다. 상호침투현상을 통해 내재된 형태 잠재성을 현실화하고 실재화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박물관 전체는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동선 변화에 따라

시·공간의 잠재성과 유동성이 펼쳐진다.

피터 아이젠만의 랩스톡 공원(Rebstock Park)<그림 6>은 다양한 디자인 방법으로 건축물 형태를 완성하여 마지막 단계로 주름개념을 디자인의 핵심모티브로 도입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부지의 외형은 어떠한 방향성도 가지지 않는 중립적 표면의 탈 중심 형태를 구성한다. 초월적인 중심이 없이 어느 곳이든 중심이 되며 또한 주변이 형성되는 형태를 형성한다.²⁵⁾ 디자인 최종 결과물로부터 아이젠만은 기존의 도시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탈 중심을 통한 재구조화로 무한한 다양성을 생성시키고 있다.²⁶⁾

III.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신체에 새로운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독창적인 방식을 통한 개성적인 디

자인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름디자인에 의한 공간 구축이 공간 표현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건축 디자인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주름기법은 점차 다각적으로 표현되는 현대패션디자인에 공간 구축방식을 통한 다양한 창의적 전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주름디자인의 종류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조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현대패션디자인에 사용되는 주름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름디자인의 종류를 분류한 선행연구를 보면 양희영, 양숙희(2007)²⁷⁾는 주름의 종류를 크링클 방식, 오리가미 방식, 프렉탈적 주름, 드레이퍼리 방식으로 분류하였고 김경희(2006)²⁸⁾는 곡선형주름, 직선형주름, 혼합형주름의 선의 형태로 주름을 분류하였으며 박혜상(2005)²⁹⁾은 고정된형태의 플리츠, 소재화 된 형태의 플리츠, 종이접기 기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주름 패션에서 표현되는 주름디자인을 동일한 형태의 단순구조 주름, 무정형적 드레이퍼리 주름, 열가공 주름, 오리가미방식 주름으로 크게 나누어보았다.

1) 동일한 형태의 단순구조 주름

개더, 리플, 프리플, 플라운스, 턱, 플리츠 등의 동일한 형태의 단순구조 주름은 주로 단순 접기나 실과 바늘을 이용한 홉질에 의해 구성된다. 동일한 형태의 단순구조 주름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디자이너와 착용자의 사랑을 받으며 장식적 혹은 실용적으로 사용되어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의복구조를 가시화시켜 공간을 확장하였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오고 있는 단순 구조 주름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내용을 풍부하게하고 디테일이 표현됨으로서 흥미로운 시

각효과를 주어 현대적 미감에 맞게 색다른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음영효과를 준다.

직선적인 아코디언 플리츠 주름은 지그재그 형태의 입체적 주름으로 입체감과 시각 효과가 뛰어나 주름디자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리듬감 있는 선을 형성하며 의복 구조상 필수적인 디테일로 처리될 경우가 많다. '06 SS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로맨틱 키치 스타일의 빨강 레이스 코르셋에 연결된 주름디자인<그림 7>은 컬러전개나 코디네이션을 통해 확장된 공간감을 보다 모던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입체 공간적 실험이 다양하게 선보였던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 '09 SS 컬렉션 중 한 작품<그림 8>으로 리플에서 보이는 울동미는 여성스럽고 로맨틱하며 활기찬 생동감을 주어 부드러운 이미지의 입체 공간적 조형미가 강조된다.

2) 무정형적 드레이프 주름

드레이프의 원래의 의미는 천을 찢다는 의미이지만 현재에는 천으로 우아한 주름을 드리우거나 느슨한 주름을 뜻한다.³⁰⁾ 드레이프 주름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에 의해 3차원의 주름이 반복적인 리듬감을 갖고 명확하게 경계를 나눌 수 없는 불확정한 조합을 이루며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화 된다. 이 드레이프 주름은 인체 위에서 형성되어지는 공간 주름으로 인체의 형태대로가 아니라 독립적 조형성을 갖고 유기적인 인체의 외적표현을 확장시켜 조화를 이루는 3차원의 무정형적 가변적 공간을 창출한다.

'09 SS,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가 세컨드 라인인 레드디자인에서 보여주는 무정형적 드레이프 주름<그림 9>은 인체의 선을 따라 유려한 흐름으로 여성스럽고 유연한 인체의 곡선미를 보여주어 섬세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09 FW 옹가르(Ungaro)의 에스테반 토타잘(Esteba

n Cotazar)은 무정형 드레이프 주름<그림 10>을 피트되는 형태로 로얄 블루 색상과 자홍 색상을 블로킹한 타이트 원피스에 드레이프 하여 착용자의 신체를 해방하고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변화 가능한 공간구조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며 형성되는 드레이프 주름으로 인해 각각 다른 형태의 불규칙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3) 열 가공 주름

열 가공 주름은 열을 가하여 소재 자체에 주름이 형성된 것으로서 소재 자체에 부피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열가소성을 이용한 영구 주름 가공 기술로 다양한 간격과 모양의 주름이 가능해졌다. 열 가공 주름은 가지런히 놓여있는 정지 상태에서는 평면적이지만 동작이 가해지면 다이내믹한 움직임에 의해 활동량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³¹⁾ 또한 열 가공 주름 의상은 얇은 소재에 주름이 만들어져 부피감을 주기 때문에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형성한다.

빅터 앤 롤프의 '09 SS 열 가공 의상<그림 11>은 디자인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오간자 소재의 추상적 디자인으로 펼침과 접힘이 연속되는 연결 고리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이 디자인은 열 가공 주름 자체의 구조적인 조형감에 의해 장식적 효과도 보여주어 실용성과 심미성이 만족된다. 착용 전의 평면적인 의상이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주름이 꺾이기도 하고 부풀기도 하면서 형태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11 SS, 열가공 주름의상<그림 12>은 주름의 입체성과 연속성의 표현 특성을 보여준다. 부조적인 오리가미 기법을 통한 소재 표현 기술은 그래픽한 느낌을 연출하며 직물과 의복 볼륨에 대한 독창적 감각을 가지고 조소적으로 표현되어 의상이 아닌 오브제 예술로 승화되고 있다.

4) 오리가미 방식 주름

오리가미는 일본의 종이접기예술로서 'oru'(접기)와 'kami'(종이)의 합성어이다. 1-2세기경 중국에서 유래된 오리가미 주름은 6세기 일본에 등장하여 종이접기를 통해 다양한 조형을 구성하는 공예로서 규칙적이고 복잡한 조형공간을 제시한다.³²⁾ 오리가미 재단법에 의하여 3차원인 착용자의 몸은 움직이는 순간마다 2차원이던 소재가 움직임을 통한 새롭게 변화된 실루엣을 부여하여 완결미를 이루게 된다.

오리가미 주름은 반복적인 접기와 펼치기 원리를 가지고 반복적 요철에 의한 주름으로 시각적 일루전 효과를 주어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 입체 조형적 주름을 형성함으로써 창의적 디자인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07 SS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작품<그림 13>은 오페라 나비 부인에서 영감을 받아 오리가미 접기 기법으로 꽃잎과 새 모양을 기하학적으로 형상화하여 기하학적인 로맨틱시즘을 선보이고 있다. 입체적, 연속적, 잠재적 조형성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작품은 움직임에 따라 펼쳐지는 공간과 접혀진 공간이 결정되므로 수도 없이 형성되는 펼쳐진 공간 이미지에 따라 내부의 공간 조형미가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체에서 해방되어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변화되고 있는 '11 FW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그림 14>은 실험적이고 교육적인 종이 오리가미 의상을 순수한 조형적 형태로 연출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가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되므로 볼륨감 있는 잠재적이고 유동적인 외형을 창조한다.

2. 현대 주름디자인의 내적의미

1) 차이에 의한 다양성

주름 공간은 현실적인 어떤 틀, 개념, 이데올로



<그림 7> 동일형태
단순구조플리츠주름
'06 SS
Dolce&Gabbana
(출처: www.style.com)



<그림 8> 동일형태
단순구조개더주름
'09 SS
Viktor&Rolf
(출처: www.style.com)



<그림 9> 무정형적
드레이프주름
'09 FW
Vivienne Westwoods
(출처: www.style.com)



<그림 10> 무정형적
드레이프주름
'09 FW
Ungaro
(출처: www.style.com)



<그림 11> 열가공주름
'09 SS
Viktor&Rolf
(출처: www.style.com)



<그림 12> 열가공주름
'11 SS
Issey Miyake
(출처: www.style.com)



<그림 13> 오리가미주름
'07 SS
Christian Dior
(출처: www.style.com)



<그림 14> 오리가미주름
'11 FW
Issey Miyake
(출처: www.style.com)

기에 매개되거나 종속된 공간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현실화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이다.³³⁾ 차이를 가진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상호관계를 맺어 전체를 하나의 응집된 형태를 구성하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주름 공간은 고정 불변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 자체가 산출하는 창조적 다양성을 생성하게 된다. 주름 공간의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이 되어가는 것이므로 규격화 된 모습이 아닌 다의적이고 불규칙적인 다양한 형태를 재창조 한다

표현적인 차이로 구성되는 차이에 의한 다양성은 연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근원적인 다양성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08 FW 샤넬(Chanel) 쿠튀르 의상 <그림 15>은 동일 형태의 단순 주름이지만 접힘과 펼침의 잠재성이 축약되어 볼륨감을 형성한다. 의복 공간에 표현되는 주름은 내부에 잠재된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를 펼침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근원적 다양성을 표출한다.

드레이프의 주름개념 접목시킨 디자인은 주름의 무한히 잠재된 존재를 표출하여 새로운 전체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다양성을 생성시키는 디자인의 중요한 표현력이 된다. 꽃에서 영감을 받아 로맨틱 페미닌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09 SS 크리스찬 디올 작품<그림 16>은 독특한 실루엣을 접기 기법의 주름을 통해 나타내어 볼륨감을 통한 다양성으로 사랑스러움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2) 경계소멸에 의한 상호관계성

공간에서의 경계소멸은 서로 다른 공간의 각각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경계가 사라져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야기하여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의복에서 주름은 의복구성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미를 창출한다. 구성 요



<그림 15> 다양성
'08 FW
Chanel, ctr
(출처: www.style.com)



<그림 16> 다양성
'09 SS
Christian Dior, ctr
(출처: www.style.com)



<그림 17> 상호관계성
'09 SS
Pringle
(출처: www.style.com)



<그림 18> 상호관계성
'09 FW
Alexander Mcqueen
(출처: www.style.com)



<그림 19> 탈중심성
'09 FW
Ungaro
(출처: www.style.com)



<그림 20> 탈중심성
'06 SS
Viktor&Rolf
(출처: www.style.com)

소들 간의 탈 경계화로 확장되어 고정적인 공간 경계를 소멸시키고 소멸된 공간 경계는 상호 연결되어 의도적으로 인지 불가능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의복에 있어서 경계소멸은 의복구성간의 경계소멸 뿐 아니라 착장 방식에 따라 의복과 신체와의 경계도 허물고 있다.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을 통해 복합 공간으로 환원되어 착용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다양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 패션 구성에 있어서 경계소멸은 친숙한 기본 스타일에서 벗어나 평범을 지양한 신비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의복 주름의 탈경계적 공간은 주름디자인의 이미지를 연속적 흐름으로 승화시킨다. 수영장 색조에서 영감을 받은 '09 SS 프링글(Pringle) 작품<그림 17>에서 여러 겹의 불규칙적인 주름으로 구성된 표면은 의복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게 하여 무한한 가능성의 열린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경계소멸에 의한 상호관계성을 보여 준다. 경계가 없는 공간은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형태 특성을 보여준다.

쇼맨 쉽이 주목받고 있는 '09 FW 컬렉션작품 <그림 18>은 과장된 디자인과 선정적인 인형 입술로 여성 혐오증을 유발하여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이다. 구성과 타협하지 않으며 탈구성의 형태로 이질적인 형태 요소를 유연하게 결합시켜서 의복형태의 경계를 나누기도 하고 새롭게 통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복의 각 부분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어 전체 안에서 부분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며 개별성보다는 전체성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본질개념의 부정에 의한 탈 중심성

탈 중심은 중심주의와 일원성의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 소외된 타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열린 사고방식이다.³⁴⁾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탈 중심 사유는 본질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의미가 부여되어 현대패션디자인에서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는 중심 사유가 된다. 이것은 중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 중심은 통일성의 미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복식미에서 벗어나 불균형, 비 경계, 부조화, 무질서 등의 도외시되었던 미적가치를 수용한다.³⁵⁾ 의복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와 관습적인 구성 방법을 탈피하는 주름의 탈 중심성은 자유로운 사고로 기본적인 디자인원리를 파괴하고 의복 착용의 고정 관념도 변경하게 된다. 탈 중심의 인식 특성은 고정적인 체계 속에 지켜져 왔던 절대적 논리와 인식 구조를 파괴하고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지닌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에 잘 나타나있다. 탈 중심의 현상은 전체와 부분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연속적인 이미지의 단절과 형태의 전위 등으로 표현되어진다.³⁶⁾

'09 FW 옹가로 컬렉션에서 선보인 에스테반 콜타자(Esteban Cortaza)의 80년대 스타일의 드레이프 주름의상<그림 19>은 상호 침투한 공간구성으로 중심이 제거되고 유동적인 탈 중심 공간이 되어 초월적인 중심이 없고 어느 곳이든 중심이 되며 동시에 주변이 되는 형상을 형성하여 정형화된 복식의형을 거부하고 있다.

'06 SS 빅터 엔 룰프의 단순구조 개더주름 의상<그림 20>은 중심의 창조와 파괴가 연속되는 잠재력 있는 공간을 가지고 광범위한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하여 원칙을 고집하지 않는 탈중심적 비정형 형태를 통하여 공간 표현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3.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조형성

들뢰즈는 ‘예술은 모방이나 재현이 아닌 감각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고 감각을 통해서 변형된 독창적 디자인이 창조 된다’³⁷⁾고 한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들뢰즈의 주름사유의 이론적 담론을 바탕으로 패션 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체성, 연속성, 유동성, 잠재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체성

주름은 공간적 위계를 전복시키고 복잡화, 탈위계화를 통해서 전체구조를 형성하는 개념이다.³⁸⁾ 들뢰즈에게 있어서 차이는 다양성과 다수성의 의미이다. 펼침은 접힘의 반대나 소멸이 아니라 접힘 작용의 연속 또는 확장으로 접힘이 현시되며³⁹⁾ 접혀있는 주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되어 누적과 병렬의 복잡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를 형성한다. 즉,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 통일성을 부여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여 복잡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동적인 이미지로부터 디자인 영감을 추구하는 디지털 건축가 그렉 린(Greg Lynn)은 복잡성은 주름의 의미인 ‘plex’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각각의 차이 자체로 인해서 생성되는 다양성은 근원적인 복잡성을 내포하며 주름으로 인한 의복의 다층적 공간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러 의복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접힘과 펼침의 반복을 통해 공간을 확장시켜 2차원의 평면은 깊이를 가지게 되고 3차원적인 입체적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주름의 높고 낮음에 의해 입체감과 볼륨감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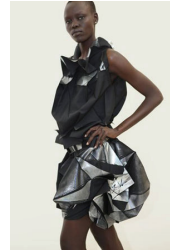
주름의 역동적인 불연속적 생성은 복잡성을 이끄는 힘이 된다. '13 SS 지암바티스타 벨리(Giambattista Valli)의 디자인<그림 21>은 입체적이고 복잡한 계층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복의 컨셉인 ‘요정의 전설’에 걸맞는



<그림 21> 입체성
'13 SS
Giambattista valli
(출처: www.style.com)



<그림 22> 입체성
'09 SS
Calvin Klein
(출처: www.style.com)



<그림 23> 입체성
'12 SS
Issey Miyake
(출처: www.style.com)



<그림 24> 연속성
'06 FW
Alexander McQueen
(출처: www.style.com)

심플한 구조에 임팩트 효과를 부여한다.

겹침과 펼침에 의한 반복적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획득한 각 부분의 외적 디자인 특이성은 이질적인 혼합과 응집을 통해 복잡성을 띤 입체적 의상으로 표현 된다. '09 SS 캘빈 클라인 의상<그림 22>의 주름 공간은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에 의해 기존의 제약을 극복하고 무한한 창조적 디자인의 가능성을 시사하여 생소한 이미지를 표출하면서 착용자에 의해 끊임없이 복잡화되어 리듬감을 형성한다.

주름으로 형성된 '12 SS 이세이 미야케<그림 23>의 두께감과 견고함을 가진 오리гами 공간은 신체 표면에 벌집 모양의 구조는 반복적인 입체 패턴을 창조한다. 다양한 입체 형태는 움직임에 따라 볼륨과 형태가 달라지며 양적인 부피감을 갖고 복잡성을 띤 새로운 구축적 형태가 만들어 진다.

2) 연속성

연속이란 형태와 선에 의미가 있어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으로서 단순한 반복이나 연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가 서로 연관성과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⁴⁰⁾ 주름은 무수히 내재되어있는 잠재성의 연속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주름공간에 나타나는 연속적 흐름은 기존의 투명한 표피와 비경계성에 의한 시지각적 연속이나 매개

된 공간의 존재에 따른 공간연속의 차원을 넘어서 공간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외부와 내부의 순환을 통해 기존의 질서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공간관계를 이루어낸다.⁴¹⁾ 틀뢰즈는 존재론적 경험의 바탕에서 연속 과정을 이루는 개념이 결과적인 작품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에 연속성 표현의 의미를 두고 있다.⁴²⁾ 접힘, 펼침, 접힘, 펼침의 변경이 연속되는 주름디자인은 연속과 불연속이 동시에 표현되는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의복 공간을 확장시킨다. 접힘과 펼침으로 표현되는 주름은 고정적인 사고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파괴되는 가변적이고 변화 가능한 공간을 형성하며 이 일반적인 감각의 크기를 넘어서는 공간은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⁴³⁾ 주름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연속되어 있고 각 이어가는 새로운 연속으로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통합한다. 부분들은 각각의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다.⁴⁴⁾ 다시 말해서 불연속의 연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영상은 순간적인 연속의 분열 이후에 다시 연속으로 이어지는 연속물을 창조하므로 새로움을 형성하게 된다. 주름이 주는 반복적인 공간의 연속성이나 시각적인 연속성은 자연스러운 인체위에 직물이 가지는 특성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 따라 실루엣이나 디테일에 변화를 가져와 인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고 다양한 미적 표현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시키게 된다.⁴⁵⁾



<그림 25>연속성
'08 FW
Viktor&Rolf
(출처: www.style.com)



<그림 26> 연속성
'09 SS
Miu miu
(출처: www.style.com)



<그림 27> 유동성
'09 SS
Viktor&Rolf
(출처: www.style.com)



<그림 28>유동성
'09 FW
Alexander McQueen
(출처: www.style.com)

'06 FW 알렉산더 맥퀸의 드레이프 주름 작품 <그림 24>은 스커트의 아래 부분과 위 부분을 상호 관입시켜 접힘과 펼침이 교차하여 각 부분들의 구별이 없어져 통합되어 단절되어 보이는 동시에 교차 면을 중심으로 아래가 위로 변하고 위가 아래로 변하는 탈 중심의 상호관계로 인해서 연속적 공간관계가 형성된다.

동일 형태의 다층구조 주름 형식의 '08 FW 빅터 앤 롤프의 연속적 드레스 공간<그림 25>은 구성요소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하여 형태변형을 통해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닌 연속적 흐름으로 전개되어 동적인 느낌의 정돈된 리듬감을 보여준다.

'09 SS, 미우미우(Miu Miu)의 단순 플리즈 디자인<그림 26>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의 연속성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접힘과 펼침을 통한 입체 주름이 공간의 볼륨감을 형상화하고 이에 더해진 붓터치의 회화적 표현은 독특한 미를 제시하여 디자인의 극적인 효과를 보여 줌으로써 착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3) 유동성

유동성은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고정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서 변동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⁴⁶⁾ 들뢰즈는 그의 주름 이론에서 차용된 폴드 개념을 통해 규범적이고 데카르트적인 공간을 일탈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유동적

관계성을 강조한다.⁴⁷⁾ 주름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유동성을 갖는다. 조형 예술에서 나타나는 유동적 형태는 공간의 재구성에 의해 변형된 유동적 공간으로 공간성 위에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로 탈구성적인 변형 공간을 창출한다.⁴⁸⁾ 이 변형 공간은 2차원의 평면이 3차원의 공간을 형성하고 착장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유연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한 변화로 고정적 형태가 아닌 유동적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 변화로 인한 유동성은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일체화된 공간을 구성한다. 주름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안과 밖이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다양성과 유동성을 창조하는 공간이다. 패션디자이너들은 신체 주변을 패브릭으로 감싸는 폴딩의 반복 작업을 통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복의 형태와 기능사이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변화시켜 구조, 장식, 공간, 형태의 새로운 창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⁴⁹⁾

전체 속에서 녹아서 일체화된 주름 공간은 연속적이고 순차적으로 변화하여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무한한 접속이 가능해진다. '09 SS, 빅터 앤 롤프<그림 27>의 입체적으로 표현된 곡선 주름의 상의 디자인과 평면적으로 표현된 기하학적 하의 패턴이 부조화를 이루는 이 유동적 공간은 동적 느낌을 주어 긴장감을 보여준다.



<그림 29> 유동성
'09 FW
Balenciaga.
(출처: www.style.com)



<그림 30> 잠재성
'11 SS
Fashion Fringe
(출처: www.style.com)



<그림 31> 잠재성
'08 SS
Givenchy
(출처: www.style.com)



<그림 32> 잠재성
'08 SS
Givenchy
(출처: www.style.com)

'09 FW,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그림 28>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형되는 변화와 융통성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독특한 표정을 가능하게 해 움직임의 유동적 조형 효과를 극대화 한다.

'09 FW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Eisaquire) <그림 29>의 드레이프 주름에 의한 유동적 공간은 의복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정된 균질의 공간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와 공간을 형성하여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이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배치되는 의복 공간은 공간의 운동감을 인식시켜주어 착용자의 개성적 표현 욕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의 감각적 자극 요인이 된다.

4) 잠재성

틀뢰즈의 존재론은 단순하고 순수하며 무한한 것,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실재하는 잠재적 존재를 바탕으로 한다. 잠재적 존재는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화 되지 않았어도 현재의 다른 사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함께 공존하는 실재가 된다.⁵⁰⁾ 잠재적 존재는 현실화된 부분의 겹쳐진 부분으로서 펼침이 되는 현실을 위한 내적 폭발력을 가지고⁵¹⁾ 내재된 존재 세계의 무한한 잠재성을 현실화 시킨다. 즉 내재된 존재 세계는 새로운 인지적 현실로

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의 존재는 다의적이고 다양한 기능공간이 되는 것이다. 주름의 잠재된 형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이의 시각에 차이를 형성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형한다는 것은 주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양면성이나 다양성을 보여주어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표현된다. 의복의 불확정한 형태의 잠재성은 탈 구조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연출과 함께 변형 가능한 다양한 의복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새로운 인체 미학을 제시 하고 있다.⁵²⁾

'11 SS 패션 프린지(Fashion Fringe)에 발표된 디자인<그림 30>은 접혀있는 면의 실제화를 통해서 재현되므로 잠재적인 것들을 끌어내고 재현을 통해 가능성을 실제화하여 창의적 디자인을 표출하고 있다. 이 잠재성은 반대된다거나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로서 잠재적인 에너지를 내포한 무한한 창조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다양한 형태의 잠재성을 지닌 이 오리가미의 상<그림 31>은 '08 SS 지방시(Hubert de Givenchy)의 오트쿠튀르 디자이너이다. 오리가미가 가진 형태 잠재성은 기존의 고정적인 의복 디자인의 틀에서 벗어나 유동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며⁵³⁾ 접힘과 펼침을 통해 의복에서 2차원의 평면성과 깊이를 가진 입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다양한 인체조형미를 창조한다. 현상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주

름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창조적 잠재성을 이끌어 내므로 현대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창조성의 방향 설정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08 SS 지방시 디자인<그림 32>에서 잠재적으로 접혀있는 부분은 펼침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우발적인 형상을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탈구성적 변형공간을 형성함으로 독창적이며 실험적인 다양한 디자인의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

IV. 결론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다양한 주름디자인은 들뢰즈의 주름사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정적이고 질서화한 고정 방식의 미적 가치의 기준의 틀을 깬으로써 독창성과 실험성 있는 현대패션디자인 전개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주름 기법은 의도된 창조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이 되는 획기적인 실험 기법으로 기존의 의복 구성 원리에 새로운 다양한 조형성을 부여해줌으로서 독특한 실루엣과 미적 조형성 있는 의복을 통해 착용자의 개성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주름사유에 의해서 통찰된 현대 패션디자인의 주름 기법은 구조적인 형태와 미학적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들뢰즈 주름사유의 의미를 크게 차이에 의한 다양성, 경계소멸에 의한 상호관계성, 본질 개념의 부정에 의한 탈 중심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들뢰즈의 주름사유와 연계된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내적의미를 차이에 의한 다양성, 경계소멸에 의한 상호관계성, 본

질개념의 정에 의한 탈 중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입체성, 연속성, 유동성, 잠재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체성은 각각의 차이 자체로 인해서 생성되는 다양성으로 인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임으로서 서로 녹아들어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상태의 상호 관계의 범위를 확장한다. 상호 관계의 범위를 확장으로 인한 의복의 다층적 공간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러 의복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접힘과 펼침의 반복을 통해 공간을 확장시켜 2차원의 평면은 깊이를 가지게 되고 3차원적인 입체적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주름의 높고 낮음에 의해 입체감과 볼륨감이 형성된다.

둘째, 연속성은 주름 공간에 나타나는 연속적 흐름은 기존의 투명한 표피와 비 경계성에 의한 시지각적 연속이나 매개된 공간의 존재에 따른 공간연속의 차원을 넘어서 공간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외부와 내부의 순환을 통해 기존의 질서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공간관계를 이루어낸다. 접힘과 펼침으로 표현되는 주름은 고정적인 사고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파괴되는 가변적이고 변화 가능한 공간을 형성하며 이 일반적인 감각의 크기를 넘어서는 공간은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셋째, 유동성은 주름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움직임의 조형적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이 변형 공간은 2차원의 평면이 3차원의 공간을 형성하고 착장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우연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한 변화로 고정적 형태가 아닌 유동적 형태가 된다.

넷째, 잠재성은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화 되지 않았어도 현재의 다른 사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함께 공존하는 실재가 된다.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은 접혀있는 면의 실제화를 통해서 접혀졌을 때와 펼쳐졌을 때의 표현 모습이 다양하게 재현되므로 잠재적인 것들을 끌어내고 재현을 통해 가능성을 실제화하여 다양성을 표출한다. 이 다양성은 반대된다거나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로서 잠재적인 에너지를 내포한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들뢰즈의 주름 사유와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철학 사유와 연동된 주름 개념은 예술과 디자인 전반에서 논의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며 근원적 사유로서 이해 가능한 주름개념이 복식공간에 적용됨으로써 주름사유를 형태화하여 다양한 형태와 공간감을 부여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새로운 복식 조형공간 구축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33편의 주름디자인 작품만으로 들뢰즈의 주름 사유에 기반한 현대패션의 주름디자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름디자인의 폭넓은 주름기법 연구가 이루어져 패션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이해영, 김경희 (2006). 주름 장식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분석 및 제작, *한복문화*, 9(3), pp.123-135.
- 2) 민경애, 원영옥 (2002). 주름의 선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3), pp.83-95.
- 3) 정혜연, 임은혁 (2011).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즈 디자인에 표현된 패션 철학,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 pp.251-252.
- 4) 김경림 (2006). 건축에서 나타난 'fold' 기법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양희영, 양숙희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7(1), pp.130-146.
- 6) 주소연 (2010). 현대패션에 나타난 fold 기법의 조형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어원적으로: 그리스어의 monados (unité, 단위 또는 통일성).
형이상학적으로: 우선, 실재성인 한에서 하나이며, 자기 자신과 동일하며, 부식하지 않는 이데아를 가리키기 위하여 플라톤에 의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라이프니츠가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이 용어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 8) 김한규 (1999). 건축형태 생성 방법으로서의 'fold'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봉일범 (2009). 1990년대 건축 담론의 실증주의 수사와 현학비판,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25(6), p.163.
- 10) Bradley Quimm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p.215.
- 11) John Rajchman (2001). *Sensation in the Deleuze Connection*, Massachusetts, The MIT Press, pp.114-115.
- 12) 강훈, 이동언 (2004). 디지털 건축디자인으로서 주름에 관한 연구-질 들뢰즈의 주름사유와 피터 아이젠만의 접기 기법을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20(11), pp.77-86.
- 13) 박은철, 김정곤 (2009). 랜드 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나는 비표상성에 관한 연구, 구-질 들뢰즈의 주름개념을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1), pp.489-493.
- 14) 임동언 (2009). 폴딩건축의 후기 구조주의적 생성에 관한 연구-질 들뢰즈의 사건의 철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조창욱 (2010). fold 개념의 공간적 구축성에 관한 연구-들뢰즈의 생성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강훈, 이동언. 앞의 책, p.79.
- 17) 김상환 (1999). *해체론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115-121.
- 18) 권태일, 이동언. 앞의 책, p.199.
- 19) 자료검색일 2013. 6.23, <http://www.aedas.com>
- 20) 김종민 (2006).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복합적 외피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 21) Michael Hardt & Gilles Deleuze (2002). 들뢰즈의 철학사상, 이성민, 서창현 옮김, 서울: 갈무리, pp.141-147.
- 22) 이정우 (2000). *접힘과 펼쳐짐*, 서울: 도서거름, p.241
- 23) 권태일, 이동언 (2004). 근원적 다양함에서 본 접힘의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p.198.
- 24) 위의 책, p.205.
- 25) 강훈, 이동언. 앞의 책, p.82.
- 26) 권태일, 이동언. 앞의 책, p.201.
- 27) 양희영, 양숙희 (2007). 앞의 책, pp.130-146.
- 28) 김경희 (2006).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장식에 관한 고찰, *한복문화*, 9(1), pp.27-41.

- 29) 박혜상 (2005). 종이접기를 응용한 플리츠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조규화, 구인숙, 금기숙, 김미옥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77.
- 31) 김지영 (2005). 주름에 의한 패션디자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5), p.256.
- 32) 자료검색일 2012.12. 7,
<http://www.origami.vancouver.bc.ca/home.html>
- 33) 권태일(2006). 들뢰즈의 재현과 표현개념으로 본 현대예술의 다양성의 문제, *동서문학연구*, 40(1), p.204.
- 34) 전세희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p.147.
- 35) 위의 책, p.149.
- 36) 권정숙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의 표현 형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pp.275- 280.
- 37) 최연옥 (2002). 들뢰즈 감각의 존재론, *홍익대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p.55.
- 38) Jeffrey Kipnis (1993). *Folding in Architecture*, N.Y. Architectural edit, p.41.
- 39) 질 들뢰즈 (2004).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p.71.
- 40) 이호정 (1995). 복식디자인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p.157.
- 41) 김태건, 김문덕 (2007).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폴드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7(3), p.119.
- 42) Tony Godfrey (2011). *Conceptual art*, London: Phaidon, p.50.
- 43) 이영미, 천득엽 (2008). 들뢰즈의 <주름: Le Pie>을 통해 본 바로크주름의 특성, *건축역사연구*, 17(6), p.14.
- 44) 박하나 (2008). 들뢰즈의 주름을 통한 해체주의 건축의 현대적 재조명,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9.
- 45) 주소연. 앞의 책, p.76.
- 46) 질 들뢰즈. 앞의 책, p.38.
- 47) 양희영, 양숙희. 앞의 책, p.133.
- 48) 서승미 (2011). 현대패션에 나타난 Fluid Form의 특성연구, *복식문화연구*, 19(4), p.150.
- 49) 양희영, 양숙희. 앞의 책, p.137.
- 50) 이정우 (2000). *담론의 공간*, 서울: 산해, p.232.
- 51) 권태일. 앞의 책, pp.297-298.
- 52) 최정화, 최유진 (2009). 기능성이 반영된 오리가미패션의 표현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4), p.523.
- 53) 위의 책, p.522.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olding Design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based on Giles Deleuze's Fold Theory

Jin, Kyung Ok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The concept of fold related to philosophical speculation is a paradigm that is generally discussed in art and design.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Deleuze's fundamental speculation system on fold design, and to find ou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folds that ar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design. By studying the formative value of folds that can be shown in modern fashion design, we consider the various and creative future directions of the modern fashion design industry. By studying the form and content of fold expressions based on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Deleuze, this paper classifies the internal meanings of folds in modern fashion design in terms of art theory and Deleuze's concept of fold design into diversity with differences, mutual relation with boundary extinction, and decentralization with refusal of the fundamental concep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old design in modern fashion design are classified into three-dimensionality of differences, continuity with space expansion, liquidity with changes, and creative potentiality. The fold speculation of Deleuze gives form to fold speculation through clothes and has the potential of lending various forms and space senses. Therefore, the speculation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boundary of design by establishing a new formative space of design.

Key words: Deleuze's concept of fold design, modern fashion design, potentiality, continuity, diversity